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경계 곧 성품, 성품 곧 경계”

뜻하다 ①

소승도는 인연에 굴리지만은 상승도는 우리가 인연을 씌이니 일체 법에 머물지 않으면서 일체 법에 굴림이다.

우리가 일체 법에 머물지 않으면서 되돌아서 그 일체 법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체법, 경계. 그 경계를 인식하면은, 이 초탈도 경계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경계, 어느 것 경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구도 경계, 태양도 경계, 그 경계를 인식하면은 성품 따로 없는 거야, 그 경계를 인식하면 알면은 그 말입니다. 성품은 따로 없습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도 알게 됩니다. 별써 그 경계를 통해서 내 성품 알게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를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으면 알게 됩니다. 또 그 성품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인식을 하면은 경계 따로 있는 손가? 경계가 따로 없어. 자 이제 무슨 도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법을 들은 것을 요망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경계가 별써 내 성품하고 틀어 아니란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째서 경계하고 성품하고 틀어 아니냐? 틀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경계는 따로 없어.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가 인식하면 그 성품은 따로 없거든요. 그럼 경계 곧 성품, 성품 곧 경계인데 언뜻 들으면 전혀 이거 못 알아들습시다. 그러면 어째서 경계, 집도 경계, 지구도 경계, 태양도 경계, 내 몸뚱이도 경계. 어느 것 하나 경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경계, 어느 것 하나 경계 아닌 것이 없는데, 일체법인데 이것이 내 성품하고 같다. 경계에 대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면 내 성품이 따로 없어. 이걸 떠나서 내 성품이 있지 않아. 또 내 성품을 인식해.

알면은 이 성품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 이것이 과학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돌려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도대체 경계가 뭘인가 한 번 봅시다. 경계. 우선 지구를 한 번 봅시다. 태양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가림을 드리기에 전에 여래라. 여래님 말씀 여

자, 올 래자. 참 이거 좋은 말입니다. 별써 여래라.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쏟아놓은 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같은 여자 올 래자, 온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온 뜻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래라, 온 뜻하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어째서 팔만대장경을 요 글 자 두 개에 다 넣어 놓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온 뜻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글자 두 개입니다. 온 뜻. 지구도 온 뜻. 어째서 온 뜻이지요? 지구라면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성품이 허공성인도 아니든 그건 별 문제로 하고, 우선 지구가 모습이 있으니 이놈이 생긴 때가 있어. 지구가 생긴 지가 사십육억 년 밖에는 안 되거든

“ 일체법의 경계 인식하면 어느것도 경계 아닌 것이 없고 ‘경계와 성품’ 둘 아닌 것 일체 돼 기쁨·젊음 등 영속되면 ‘병’ 있는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며 진짜가 아니냐 ‘뜻하다’ 할 뿐 ”

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으니 앞으로 사십육억 년이 더 있을는지 육억 년이 더 있을는지 이걸 미지수로 하고 모습이 있으니 장차 없어질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하니 온 뜻 한 것 아니예요? 이거 납득 겁니까? 촛불 지금 켜졌다 말쑤요. 나중에 이거 다 하면 없어져. 촛불도 켜진 듯. 지금 밝지 않아요? 밝은 뜻이거든. 어느 것 하나 뜻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는 듯. 물이 흐르는 듯. 어떻게 됩니까? 납득 안 겁니까? 여러분, 온 뜻 기쁨 뜻 슬픈 뜻. 기쁘다는 말은 아주 즐거운 걸 기쁘다고 하는 것이고 즐겁다는 건 또 좀 다릅니다. 참말로 기쁘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쁨, 이쁨이나 사흘이나 기쁨, 그 기쁨 그대로 가져집니까? 죽 계속해서 하루종일 이십사 시간 기쁘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또 슬픈 일이 있다

말이죠. 이십사시간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서 자꾸 울어. 이십사 시간 울면 그 사랑 미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기쁜 것이 영속이 안돼. 영속되면 벌써 병이다. 슬픈 것도 슬픈 것이 영속이 안돼. 이것도 벌써 병이라. 슬픈 듯 기쁜 듯. 그럼 즐거운 것은 뭣이냐. 즐거운 것은 그런 기쁜 것처럼 하~ 이런 것이 없어. 그만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즐길 따름이라. 즐겁다는 표도 없어. 또 그대로 괴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 안심이 딱 돼. 이걸 영원성입니다. 이걸 적멸성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쁘다는 것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좀 기쁘면 하하 웃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기쁘 놓으면 나중에 웃는 이것도 다 아파. 나중에엔 노이로제가 돼 버려.

기쁜 듯.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문제하고 결부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 듯. 여러분이 나도 난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난 난 것도 아니네. 헛거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법신이 나오 들어 가는 것이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나고 거 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이런 헛거를 나투었어. 그러나 이런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 난 듯. 또 우리가 늙었다 말쑤요. 또 젊은 분들이 있던 말쑤요. 젊은 사람 젊은 듯 만약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서른살 더 먹으면 우리처럼 돼버리거든. 그러니 젊은 듯이지.

아시겠지요? 늙은 듯. 원래 그 법성 자리가 참말로 늙은 것은 없지만은 실제로는 늙었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늙은 이것을 갖다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 잠깐 동안 이거든. 늙은 듯. 기침을 하는 듯. 아까는 했지만은 지금은 없었어요? 전부 뜻이예요. 어느 것 하나 떠난 것이 없어요.

아픈 듯. 아픈 듯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낫거든. 그때는 아팠던 것 없어 그때 아픈 뜻이예요. 죽는 듯. 죽어도 참말로 죽는 것 아니거든요. 이걸 없애져. 이거는 불구덩이나 휴구덩이에 가기 전에도 산화돼서 없어지지만 말이죠. 중건이 산화되는 건 제 이 문제로 하고도 말이죠. 그 죽음으로서 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법신이 다른 걸 나투어.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죽은 듯 한 거예요. 그러나 죽는 듯 한 거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삼밀가지하면 즉신성불이다

三密加持

7-3 참회진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법문을 진리를 일러 준다지만 실상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고 장황되어 자칫 하면 후학들이 지엽말단에 얽매어 참 소리를 놓쳐 버리는 것이 일쑤다. 법문을 통해 누가 일러 주어서 아는 것 보다는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법문 이전의 진리를 터득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아는 길이 아닌가.

별써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소리 한번 일러서 안 듣고, 두번 일러서 그만이고 세번 씩이나 일러야 하게 되면 큰 소리가 나게 마련이고 재미 적은 것이다. 큰 소리 나기 전에 첫마디에 선포 알아차리고 열른 시키는 대로 해버린 그렇게 된 형상이 바로 아래 ‘·’ 자인데 실상은 이것조차도 나기 이전에 그때 법문을 알아듣는 그것이 가장 완전히 아는 것이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의 몸뚱이,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 불이 진리의 진리, 다시 말하여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 지경을 ‘·’ 자로써 설명한다. ‘·’ 자도 나기 이전에 비로자나 불을 알았다면 그야말로 가장 잘 알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무엇이 어찌니 해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다. 불교의 공안(公案) 가운데, 부모 낳기 이전의 아(我)라는 것이 무엇이나, 부모에게서 이 몸뚱이를 받기 이전에 그때 ‘나’ 란 것은 무엇이나,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 알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經典)을 일체 음성의 기본인 ‘·’ 자도 나기 이전 그 때 것을 알았다면 크게 잘 알 것이다. 이를 일컬어 ‘·’ 자의 본불생관(本不生觀)이라고 한다.

이것은 밀교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서 법신(法身) 비로자나의 성불(成佛)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또 하나 재미 있는 것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이야기다. 몸으로 한 노릇, 입으로 한 말, 뜻으로 한 정신 작용. 이런 것이 우리를 범상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기 분리되어 제멋대로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몸과 말하는 음성과 우리의 정신, 이 세 가지의 신비가 한데 합일되었을 때 이를 일컬어 삼밀가지(三密加持)라고 한다. 몸에는 신밀(身密)이, 입

에는 구밀(口密)이, 뜻에는 의밀(意密)이 있다. 밀(密)이란 비밀이라는 뜻이다. 몸의 몸짓의 신비성, 소리의 신비성, 정신 작용이 자아내는 온갖 신비성, 신기로운 이 지경이 한데 합일되는 것을 삼밀이 가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음성으로써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삼밀이 가지한다. 그러하여 삼밀이 가지하는 이것이 곧 이 육신으로서 성불(成佛)하는 지경이다. 삼밀가지(三密加持) 하면 즉신성불(卽身成佛)이다. 곧 이 몸뚱이가 부처를 이룬다.

모든 경전 가운데 그 경전의 안목이라고 할까, 이의 가장 근간이라 하는 것이

“ ‘신구의 삼업의 신비성 합일 되는 것이 ‘삼밀가지’ 정신·육체·음성 완전히 통일 몸뚱이가 부처를 이룬 지경 불멸 후 1천년대 비밀불교는 진언·만다라 등에 진리요약 ”

이 불멸 후 천년 대에 이르러 비밀불교(秘密佛敎)라고 하여 이때부터는 경전의 주요 안목이 총지(總持)에 있었다. 다라니(陀羅尼)가 경의 총안목처럼 되었다. 흡사 그물의 한 코를 잡아당기면 천코만 코가 주르르 팔러 오듯한다고 하여 이를 총지라고 하였다. 이 총지는 실상인즉 알고 보면 요즘 현대 사회에도 흔히 적용되고 있다. 반드시 불교의 영향이랄 수는 없겠는지 모르나 재미 있는 대목이다.

현대의 정치 사회에서는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선거·투쟁·그 밖에 무슨 큰 일을 하려고 들 때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어 걸게 된다. 구 자유당 집권 당시, 대

통령 선거전에 있어 야당에서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는 구호를 외쳐댔다. 그러자 자유당 측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구호를 만들어내어 즉각적으로 응수했다. 정객들은 말 만들어내는 건 하여튼 잘하는 모양인데 ‘갈아봐야 별 수 없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불교의 입장에서 보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주문(呪文)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보면 현대인들은 주문 비슷한 소리에 귀가 쫑긋하여 열른 알아듣기도 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 진언(眞言)을 일컫고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므로서 커다란 신비에 접한다느니 보다도 이것이 짧은 몇 마디 말 가운데 진리의 중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간직하였고 그러므로 이를 외우면 그 진리를 성취할 수 있고 또 중생에게 성취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언을 다라니라고 하지만 비슷한 말로 만다라(曼陀羅)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륜(圓輪)이 구족(具足)하다는 것을 이른다. 이것이 무슨 말이나 하면 가령 이 다솔사(多率)라는 절엔 법당이 있고 화목(花木)이 어우러져 뜰을 이루었고 법당 안에는 그림이 있고 처마에 조각을 하여 단청(丹靑)을 입혔고 하여 절 전체가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만다라라고 한다는 소리다.

경주의 석굴암은 매우 귀중한 만다라다. 짜임새 있는 거룩한 수련도장(修練道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번역할 말이 없으므로 원어대로 만다라라고 하는 것이다. 원만한 수레 바퀴가 구족하고 원륜구족(圓輪具足)이라느니 또는 원만한 제단(祭壇)이니 번역해 보아야 신통치 않다. 금강산(金剛山)은 풍경이 절승(絶勝)이고 아주 짜임새 있는 일대 자연 만다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음살바, 파다모디사다야 사바하’ 라는 주문의 뜻은 보름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수(傳受)는 일정한 밀교의 의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 구회 회주 원회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반,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반,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반,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반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반,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반, 기쁨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반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